

李濟馬의 格致藁中 儒略에 觀한 考察 (事物·觀仁·志貌·天下를 中心으로)

金 鍾 元*

I. 緒 論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을 지어 四象本質이라는 새로운 醫學을 탄생시켰고 東醫壽世保元 以前에 이러한 四象醫學의 基底를 形成하는 四象哲學을 格致藁에서 밝혔는데 格致藁는 儒略 反誠箴, 獨行篇으로 되어있다.

그 中 儒略은 儒學의 이론을 事心身物의 哲學的 思考로 요약하여 再定立한것인데 事心身物의 四要素로 人間과 事物(社會·自然)間的 相互連關性을 밝히고 있다.

格致藁의 內容은 李濟馬가 既存의 儒學原理를 自身의 四象語彙로 再創造하였으므로 그것을 해석 이해하는데는 既存 四書의 內容을 미루어서도 그 內容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으나 결국 格致藁 內容自體의 相關性이 더욱 중요한 內容이라 하겠다. 이에 의하여 事物·觀仁·志貌·天下四篇에 나와 있는 事心身物의 요약 정신과 상호관계에 대하여 考察해 보고자 한다.

II. 本 論

1. 事 物

物宅身也, 身宅心也, 心宅事也.

物은 身を 집으로 하고 身은 心を 집으로 하고 心은 事를 집으로 한다. 그 관계는 物<身<心<事로 설명된다.

이는 物身心事의 本體의인 面이며 陰陽的인 面으로 구분하여 보면 物이 가장 陰化된것, 事가 가장 陽化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一物止也, 一身行也, 一心覺也, 一事決也
勤以止也, 能以行也, 慧以覺也, 誠以決也
萬物居也, 萬身群也, 萬心聚也, 萬事散也
仁以居也, 義以群也, 禮以聚也, 智以散也.

여기서 一은 單數 萬은 複數를 의미한다.

單數란 하나 個人, 自我, 自己 혼자서 있을때 생기는 현상 複數란 여럿 社會, 自我와 非我사이에서 생기는 현상 등으로 연역하여 확대 추리할 수 있다.

*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과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止行覺決, 勤能慧誠은 個人的 倫理的인 面, 居群聚散 人義禮智는 社會生活에서 生하는 倫理的인 面으로 설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生活的인 面에서 個人的 倫理的인 面과 社會生活에서 生하는 倫理的인 面이 同時에 존재하는 것이지 결코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面에서 萬과 一이 同時에 존재한다.

萬物也, 身一也, 心一也, 事萬也.
萬事大也, 一心小也, 一身近也, 萬物遠也.
治平大也, 格致小也, 誠正近也, 修齊遠也.

이제마는 이러한 個人的倫理와 社會的倫理를 다시 陰陽論의으로 설명하고자 大小近遠으로 나누고 다시 이것을 大學의 八德目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格致, 誠正은 小·近과 연결하여 個人的倫理로, 治平, 修齊는 大·遠과 연결하여 社會的倫理로 설명한다.

이는 儒敎에서 修로 治人과 관련되어 설명할 수 있다. 이제마가 事心身物을 전개함에 있어서 修로 治人하는 유학의 기본 정신을 가진 大學의 八德目を 연결하고 있으니 이제마의 改新儒學은 原始儒敎와의 상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以上の 內容을 다시 살펴보면 人的 生活속의 기본 요소를 事心身物로 삼고 먼저 自身の 修己를 위한 德目으로 止行覺決로 그것을 이루기 위한 用을 勤能慧誠로 정한다. 自己와 他人과의 관계, 治人을 위한 德目으로 居群聚散을 그것을 이루기 위한 用을 人義禮智 정한다. 그러나 修己와 治人이 실제 生活속에서는 따로 일수가 없는 것이니 실제 生活에서는 萬, 一과 大小遠近의 差等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貌言視聽 事四端也.
辨思問學 心四端也.

屈放收伸 身四端也
志膽虛意 物四端也.

여기서 四端은 孟子에서 나오는 仁義禮智의 四端之心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제마는 이러한 四端을 事心身物에 각각 새로이 설정하여 본 것이다.

여기서 事四端과 物四端到 대하여 살펴본다면 事란 일반적으로 社會의 一切活動과 자연계의 一切活動을 통틀어 말하는데 이것의 四端을 事自體에 두지않고 事를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는 貌言視聽에 두었다는 점과 物이란 일반적으로 自然界전체에 存在하는 事物인데 이것의 四端은 物自體에 두지않고 物을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는 志膽虛意에 두었다고 하는 점에서 李濟馬는 人間을 中心으로 하여 나머지것들을 客으로 이해하고자 하는점을 엿볼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人間을 中心으로 하여 體를 사람에게 두고 宇宙의 原理를 用으로 하면서 宇宙의 原理인 道德을 人間中心으로 하여 知性和 德性으로 展開하고 있다는 점이다. 곧 自我와 非我로 나누어서 非我是 自我를 통하여 인식되어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心應事也 博而周也.
事湊心也 第而恭也.
身行物也 立而敬也.
物隨身也 載而效也.

心은 事에 應하며 博하고 周한다.
事는 心을 모아야하며 察하고 恭한다.
身은 物을 움직이며 立하고 敬한다.
物은 身을 따르나니 載하고 效한다.

이는 事와 心이 서로 관련을 가져서 反應하며 身과 物이 서로 관련을 가지고 상관한다는 뜻이니 事와 心은 그 屬性이 無形, 形而上學的인 面이 있고 身과 物은 그 屬性이 有形, 形而下學的인 面이 있

으므로 서로 관계를 맺게됨을 이야기하고 있다.

嗇心偏也, 詐心倚也, 侈心過也, 懈心不及也.
偏心偏決也, 倚心倚止也, 過心過覺也, 不及心不及行也.

嗇詐侈懈는 偏倚過不及이니 이는 中庸에서 “中庸者 不偏 不倚 無過 不及而平常로 理”라고 하였고 “君子中庸 小人反中庸”라고 하는 嗇詐侈懈는 小人之心이며 李濟馬는 이러한 小人之心을 止行覺決과 연결시켜서 偏心은 偏決 倚心은 倚止 過心은 過覺 不及은 不及行으로 설명하고 있다.

止行覺決은 修己之德目이니 嗇詐侈懈는 修己에 不能하는 小人之心으로 설명할 수 있다.

私心昧也, 慾心闇也, 放心室也, 逸心罔也.
昧心昧學也, 闇心闇辨也, 窒心窒問也, 罔心罔思也.

私, 慾, 放, 逸은 昧闇窒罔하는 것이며 이것을 學問思辨과 연결하여서 昧心은 昧學 闇心은 闇辨, 窒心은 窒問, 罔心은 罔思로 설명하고 있다.

中庸에 “博學之 審問之 慎思로 明辨之 篤行之”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篤行之를 뺀 나머지를 心四端인 學問思辨으로 삼고 여기에 私, 慾, 放, 逸과 관련지어서 설명하고 있다.

私心而昧學者 視天下事忽 而視自己事重也.
慾心而闇辨者 視天下物貪 而視自己物屑也.
放心而窒問者 思一身無慮 而橫行則快於心也.
逸心而罔思者 思一心無爲 而自棄則便於身也.

私心, 昧學하는 者는 天下의 事를 소홀히하고 자기의 事를 重하게 본다. 慾心, 闇辨하는 者는 天下의 物을 탐하고 자기의 物은 작게 본다. 放心, 窒問하는 者는 一身은 고려하지 않아 그 마음을 제멋대로 橫行케 하며 逸心, 罔思하는 者는 一心은 아무

런 일을 할 생각이 없어 편안한 곳에 그 몸을 버리는 것이다.

이는 私慾放逸과 昧學, 闇辨, 窒問, 罔思로 인하여 事心身物에 미치는 惡영향을 말하고 있다.

一天之同胞 好德者多助 嗜利者寡助 薄夫之心常憂也.

萬物之群居 謹厚者必興 殘刻者必亡 頑夫之心常恐懼也.

四方之會通 周蜜者能成 格戾者不入 懦夫之心常忿懣也.

百工之和利 有恥者能任 偷惰者不行, 鄙夫之心常好樂也.

사회적 현상일 一天之同胞(事) 萬物之群居(物) 四方之會通(心) 百工之和利(身)를 각각 事心身物에 연결 짓고 여기에 論語의 君子小人之心, 孟子의 四夫, 大學의 四心과 관련지어 四象學으로 展開하고 있다.

不可不反誠然後 與衆同濟而不憂患也.
不可不克勤然後 與物俱立而不恐懼也.
不可不擴慧然後 有學有教而不忿懣也.
不可不邇能然後 有爲有守而不好樂也.

誠勤慧能은 個人的 修己의 德目인 止行覺決을 이루기 위해 用이니 이러한 小人之心, 大學의 四心を 극복하기 위하여 修己로 하여야 함을 말하고 있다.

誠勤慧能한 후에야 事心身物의 사회적 현상의 不正의인 面과 大學之四心を 극복할 수가 있다.

無目則無視 無耳則無聽
耳目廢而觀聽則豈美形人乎哉
不智則無助而憂患
不仁則不立而恐懼
無禮則格戾而忿懣
無義則偷惰而好樂
是可堪乎可哀也已

孟子曰 人之有四端 猶其有四體也
有是四端而 自謂不能者 自賊者也
不其丁寧之乎

仁義禮智는 治人之德目인 居群聚散을 이루기 위
한 用이니 이것이 不人, 不智, 無禮, 無義한즉 小人
之心 大學의 四心에 빠지게 된다.

民有私己之得也 所以嗇也
民有欲人之有也 所以詐也
民有放縱之好也 所以侈也
民有安逸之願也 所以懶也
不獨嗇之不善出於私也
雖誠之善亦出於私也
不獨詐之不善出於欲也
雖勤之善亦出於欲也
不獨侈之不善出於放也
雖能之善亦出於放也
不獨懶之不善出於逸也
雖慧之善亦出於逸也
是知物私非不善也
事私斯不善也
事欲非不善也
物慾斯不善也
身放非不善也
必放斯不善也
心逸非不善也
身逸斯不善也

여기서 私心은 私己之得, 欲心은 欲人之有, 放心
은 放慧之好, 逸心은 安逸之願으로 표현하고 있
으며 이것은 嗇, 詐, 侈, 懶하기 때문이다.

또한 不獨嗇(詐, 侈, 懶)之不善과 雖誠(근 能,
慧)之善이 모두 出於私라고 한것은 私心이 嗇으로
因하여 나오지만 항상 不善한것의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物私非不善이며 事欲斯不善이라고 하였으니

事-私 }
物-欲 } 의 관계가 성립되어야만이 不善임을
心-放 } 알 수가 있다.
身-逸 }

抑有不蔽私之道乎其學乎
抑有不礙慾之道乎其辨乎
抑有不陷放之道乎其問乎
抑有不迷逸之道乎其思乎
以其治國平天下之誠爲學所得之也
故其私己得之嗇莫之蔽也
以其修身齊家之勤爲辨所得之也
故其欲人有之詐莫之礙也
以其格物致知之慧爲問所得之也
故其放縱好之侈莫之陷也
以其誠意正心之能爲思所得之也
故其安逸願之懶莫之迷也

私慾放逸은 學辨問思하여야 극복할 수 있다. 즉
治平之誠, 修齊之勤, 格致之慧, 誠正之能도 學辨問
思하여야 얻을 수 있으며 次에 의하여 私己得之嗇
欲人有之詐, 放縱好之侈 安逸願之懶를 극복할 수
있다.

有弗學學之嗇與誠孰多乎
有弗辨辨之詐與勤孰多乎
有弗問問之侈與慧孰多乎
有弗思思之懶與能孰多乎

弗學(辨, 問, 思)은 嗇(詞, 侈, 懶)多之學(辨, 問
思)는 誠(勤, 慧, 能)多之 연결된다.

嗇詐, 侈懶는 止行覺決의 偏倚邑不及이요 誠勤慧
能은 止行覺決을 이루기 위한 用이니 學辨問思으로
心을 닦은즉 嗇, 詐, 侈, 懶를 무리치고 誠勤慧能으
로 止行覺決을 이룬다.

斥嗇而反誠則 智無偏矣
却詐而趨勤則 仁無倚矣

戒侈而治慧則 禮無過矣
 警懶而習能則 義無不及矣
 逸最是善作孽也
 愼思誠正則莫之孽也
 是故私最是善作孽也
 博學治平則莫之孽也
 慾最是善作孽也
 明辨修齊則莫之孽也
 放最是善作孽也
 審問格致則莫之孽也

따라서 嚮詐侈懶를 反却, 戒, 警하고 誠勤慧能을 反趨治習한즉 智仁禮義가 無(偏倚邑不及)케 된다.

이러한 故로 私, 慧放逸은 품을 이룸의 가장 큰 장애가 되나 博學治平, 明辨修齊, 審問格致 愼思誠正하여 이를 극복한다.

事物篇은 결국 誠勤慧能으로 修己하고 仁義禮智로 治人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嚮詐侈懶와 私慧放逸을 學問思辨으로 극복하여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2. 觀 仁

觀仁何也 觀效也
 觀智何也 觀周也
 觀禮何也 觀恭也
 觀義何也 觀敬也
 效於何也 效於物也
 周於何也 周於事也
 恭於何也 恭於心也
 敬於何也 敬於身也
 效於物何也 善始也
 周於事何也 善終也
 恭於心何也 反求也
 敬於身何也 有恥也

仁智禮義를 觀하는 것은 效周恭敬을 觀한다고 하였는데 事物篇에서 一物 一身 一心 一事는 勤能慧誠으로 止行覺決하나 萬物 萬身 萬心 萬事는 仁義禮智로 居群聚散한다고 하니 결국 仁義禮智는 一物 一身 一心 一事가 萬物 萬身 萬心 萬事로 分化될 때 적용되는 것이며 이러한 仁義禮智를 觀하기 위하여 事와 心이 應湊하고 身과 物이 隨行한 分化의 結果인 效周恭敬을 觀한다고 하였다. 이를 陰陽論의 圖式化해 보면

陽 [心應事: 周(心→事)之 陽化→周於事-善終
 (形而上) 事湊心: 恭(事→心)之 陰化→恭於心-反求
 陰 [身行物: 敬(身→物)之 陰化→敬於身-有恥
 (形而下) 物隨身: 效(物→身)之 陽化→效於物-善始
 여기서 周於事, 效於物은 陽化된 개념으로 善終 善始하며 恭於心 敬於身은 陰化된 개념으로 反求 有恥한다.

여기서 [周於事-善終 之 [恭於心-反求 之
 [效於物-善始 之 [敬於身-有恥 之
 事物과 心身이 상호관계를 갖는다.

慾於人無不誠者 眞誠難知也
 私於己無不勤者 眞勤難知也
 放於大無不好競功者 眞能難知也
 逸於廣無不好爲人師者 眞慧難知也

慾於人(物) 無不誠(事) 者는 참된 誠(事)을 알기 어렵다.

私於己(事) 無不勤(物) 者는 참된 勤(物)을 알기 어렵다.

放於大(心) 無不好競功(身) 者는 참된 能(身)을 알기 어렵다.

逸於廣(身) 無不好爲人師(心) 者는 참된 慧(心)을 알기 어렵다.

여기서 보면 참된 誠(事)를 알기 위해서는 物도 알아야 한다. 참된 能(身)을 알기 위해서는 心도 알

아야 한다. 즉 事와 物, 心과 身이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是故觀仁者不但觀效而觀周則惻隱之實不可掩也
 觀智者不但觀周而觀效則是非之實不可掩也
 觀禮者不但觀恭而觀敬則辭讓之實不可掩也
 觀倚者不但觀敬而觀敬則羞惡之室不可掩也

이러한 故로 觀仁者는 觀效뿐만 아니라 觀周함을 볼 때 惻隱之實을 가리우지 못하며 觀智者는 觀周뿐만 아니라 觀效함을 볼 때 是非之實을 가리우지 못하며 觀禮者는 觀恭뿐만 아니라 觀敬함을 볼 때 辭讓之實을 가리우지 못하며 觀倚者는 觀敬뿐만 아니라 觀恭함을 볼 때 羞惡之實을 가리우지 못한다.

是知不智之仁姑息之仁也
 似仁而非仁也
 不人之智奸猾之智也
 似智而非智也
 無義之禮苛妄之禮也
 似禮而非禮也
 無禮之義武斷之倚也
 似倚而非倚也

이러한 故로 不智之仁은 姑息之仁이며 似仁은 仁이 아니다. 不仁之智는 奸猾之智이며 似智는 智가 아니다. 無倚之禮는 苛妄之禮이며 似禮는 禮가 아니다. 無禮之倚는 武斷之義이며 似義는 義가 아니다.

同人之善而無利人之有者 誠真的也
 足己之畜而能推己之餘者 勤真的也
 成功之下 信賢而信衆者 能真的也
 爲民之上 好問而好察者 慧真的也

誠(事)이 참되기 위해서는

〔 同人之善-物面에서 → 事와 物을 同時에
 無利人之有-事面에서 → 觀하여야 한다. 〕

勤(物)이 참되기 위해서는

〔 足己之畜-事面에서 → 事와 物을 同時에
 能推己之餘-物面에서 → 觀하여야 한다. 〕

能(身)이 참되기 위해서는

〔 成功之下 信賢-心面에서 → 事와 物을 同時에
 信衆-身面에서 → 觀하여야 한다. 〕

慧(心)이 참되기 위해서는

〔 爲民之上 好問-身面에서 → 事와 物을 同時에
 好察-心面에서 → 觀하여야 한다. 〕

眞誠然後假誠不能詐也
 眞勤然後假勤不能瞞也
 眞能然後假能不能曉也
 眞慧然後假慧不能問也

故之 참으로 誠한 후에라야 가짜 誠이 속이지 못한다.

참으로 勤한 후에라야 가짜 勤이 가하지 못한다.

참으로 能한 후에라야 가짜 能이 흔들지 못한다.

참으로 慧한 후에라야 가짜 慧가 이간하지 못한다.

勿驕也 憂將至矣 勿畜也 畜可恥矣 勿驕也
 人或誑汝 勿畜也 人或諂汝 勿驕也 如伎者何
 勿矜也 咎將至矣 勿侈也 侈可羞矣 勿矜也
 人或詭汝 勿侈也 人或譏汝 勿矜也 如妬者何
 勿伐也 敗將至矣 勿懶也 懶可怍矣 勿伐也
 人或譎汝 勿懶也 人或嘲汝 勿伐也 如軋者何
 勿夸也 悔將至矣 物詐也 詐可愧矣 勿夸也
 人或罔汝 勿詐也 人或窺汝 勿夸也 如嫉者何
 勿嗇也 亞行嗇者-人少嗇 惡能當人行嗇者萬人
 多嗇哉 勿驕也 如警者何
 勿侈也 我行侈者-人少侈 惡能當人行侈者萬人
 多侈哉 勿矜也 如陷者何
 勿懶也 我行懶者-人少懶 惡能當人行懶者萬人

多懶哉 勿伐也 如傾者何
 勿詐也我行詐者一人小詐 惡能當人行詐者萬人
 人多詐哉 勿夸也 如覆者何
 勿奮也我喻義者斗筭細奮 惡能勝人喻利者斛
 量巨奮哉
 勿侈也我喻義者斗筭細侈 惡能勝人喻利者斛
 量巨侈哉
 勿懶也我喻義者斗筭細懶 惡能勝人喻利者斛
 量巨懶哉
 勿詐也我喻義者斗筭細詐 惡能勝人喻利者斛
 量巨詐哉

驕矜伐夸와 奮侈懶詐를 열거하여 경고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여기서 奮侈懶詐는 我行하여 萬人들이 奮侈懶詐케 되는 것이요, 결국 修己를 不完全한 결과인 것이요. 驕矜伐夸는 他人과의 관계속에서 생기는 私慾이니 治人을 不完全한 결과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奮侈懶詐는 修己之德目인 止行覺決을 이루기 위한 用인 勤能慧誠과 관련지어 설명하여 驕矜伐夸는 治人之德目인 居群聚散을 이루기 위한 用인 仁義禮智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苟志於誠矣 勿雜於奮也 雜奮則 不足以勝不誠者矣 既得於智矣 勿繼以驕也
 繼驕則 不足以帥不智者矣
 苟志於慧矣 勿雜於侈也 雜侈則 不足以勝無慧者矣 既得於禮矣 勿繼以矜也 繼矜則 不足以帥無義者矣
 苟志於勤矣 勿雜於詐也 雜詐則 不足以勝不勤者矣 既得於仁矣 勿繼以夸也 繼夸則 不足以帥不仁者矣

진실한 志를 가지고 誠하여라 奮에 雜하지 말라. 奮이 섞이면 不誠者를 이기기에는 不足하다. 이미 智를 얻어도 계속하여 驕하지마라 계속 驕한즉 不

智者를 帥하기에는 不足하다. 진실한 志를 가지고 慧하여라 侈에 雜(섞이지)하지 말라. 侈가 섞이면 無慧者를 이기기에는 不足하다. 이미 禮를 얻어도 계속하여 矜하지 마라 계속 矜한즉 無禮者를 帥하기에는 不足하다.

진실한 志를 가지고 能하여라 懶에 섞이지 말라. 懶가 섞이면 無義者를 이기기에는 不足하다. 이미 義를 얻어도 계속하여 伐하지 마라 계속 伐한즉 無義者를 帥하기에는 不足하다.

진실한 志를 가지고 勤하여라. 詐에 雜하지 말라. 詐가 섞이면 不勤者를 이기기에는 不足하다. 이미 仁을 얻어도 계속하여 夸하지 마라 계속 夸한즉 不仁者를 帥하기에는 不足하다.

是故 以奮勝奮則 其術耗也
 以誠勝奮則 其術實也
 以不智帥不智則 其術昧也
 以智帥不智則 其術明也
 而侈勝侈則 其術敗也
 而慧勝侈則 其術成也
 而無禮帥無禮則 其術缺也
 而禮帥無禮則 其術完也
 而懶勝懶則 其術難也
 以能勝懶則 其術易也
 以不義帥不義則 其術亂也
 以義帥不義則 其術治也
 以詐勝詐則 其術疏也
 以勤勝詐則 其術密也
 以不仁帥不仁則 其術危也
 而仁帥不仁則 其術安也

이러한 故로 嵩(侈, 懶, 詐)로 嵩(侈, 懶, 詐)를 勝한즉 其術은 耗(敗, 勤, 疏)하며 誠(慧, 能, 勤)으로 嵩(侈, 懶, 詐)를 勝한즉 其術은 實(或, 易, 密)하다.

不智(無禮, 不義, 不仁)로 不智(無禮, 不義, 不

仁)를帥한즉 其術은 昧(缺, 亂, 危)하며 智(禮, 矣, 仁)로 不智(無禮, 不義, 不人)를帥한즉 其術은 明(完, 治, 安)하다.

眞誠無畜然後 多畜巨畜 莫之爭也
 眞慧無侈然後 多侈巨侈 莫之爭也
 眞能無懶然後 多懶巨懶 莫之爭也
 眞勤無詐然後 多詐巨詐 莫之爭也
 眞智不驕然後 伎者讐者 莫之凌也
 眞禮不矜然後 妬者陷者 莫之凌也
 眞義不伐然後 軋者傾者 莫之凌也
 眞仁不夸然後 嫉者覆者 莫之凌也

誠, 慧, 能, 勤과 畜侈懶詐를 관련짓고 智禮義仁和 驕矜伐夸를 관련지어서 설명하고 있다.

畜侈懶詐는 偏倚邑不及하는 것으로 修己의 不完全한 결과 인것이므로 誠慧能勤과 관련지어 설명하며 驕矜伐夸는 他人과의 관계에서 나오는것으로 治人の 不完全한 결과인것이므로 智禮義仁和 관련지어 설명한다.

不可不 日夜豐豐 博其智而周其誠 而不敢畜而不敢驕也
 不可不 日夜樸樸 審其禮而恭其慧 而不敢侈而不敢矜也
 不可不 日夜瞿瞿 慎其義而敬其能 而不敢懶而不敢伐也
 不可不 日夜仔存 明其仁而效其勤 而不敢詐而不敢夸也

따라서 이러한 畜侈懶詐와 驕矜伐夸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智禮義仁을 博審愼明하고 誠慧能勤을 周恭敬效하여야 한다. 다르게 말한다면 誠慧能勤을 用으로 止行覺決의 德目を 實行하여 修己하고 智禮義仁을 用으로 居群聚散聚散의 德目を 實行하여 治人하여 畜侈懶詐와 驕矜伐夸를 하지 않는다. 허나 이러한 修己와 治人이 따로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3. 志 貌

物四端과 事四端을 陰陽의으로 區分하면

〔物四端-陰
 事四端-陽

또한 〔勤能慧誠- 一物一身一心一事之用
 → 個人-陰
 仁義禮智- 萬物萬身萬心萬事之用
 → 社會-陽

따라서 物四端인 志膽慮意는 勤能慧誠과 事四端인 貌言視聽은 仁義禮智와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人皆志也 志皆濟也
 人皆膽也 膽皆整也
 人皆慮也 慮皆和也
 人皆意也 意皆周也
 莫非志也 莫非濟也 濟久而充志者 勤者志也
 莫非膽也 莫非整也 整久而充膽者 能者膽也
 莫非慮也 莫非和也 和久而充慮者 慧者慮也
 莫非意也 莫非周也 周久而充意者 誠者意也

志膽慮意는 物四端이며 志膽慮意는 다 濟整和周한다.

濟久而充志 一 勤者志也
 整久而充膽 能 膽
 和久而充慮 慧 慮
 周久而充意 誠 意

즉 濟, 整, 和, 周가 久하여 志膽慮意를 充하게 하면 勤能慧誠가 志膽慮意가 된다.

人皆貌也 貌皆敬也
 人皆言也 言皆忠也
 人皆視也 視皆誠也
 人皆聽也 聽皆信也

莫非貌也 莫非敬也 敬久而充貌者 仁者貌也
莫非言也 莫非忠也 忠久而充言者 義者言也
莫非視也 莫非誠也 誠久而充視者 禮者視也
莫非聽也 莫非信也 信久而充聽者 智者聽也

貌言視聽은 事四端이며 貌言視聽은 다 敬忠誠信
한다.

敬久而充貌 → 仁者貌也
忠久而充言 義言
誠久而充視 禮視
信久而充聽 智聽

즉 敬忠誠信이 久하여 貌言視聽을 充하게 하면
仁義禮智가 貌言視聽이 된다.

天下樂濟 我濟也 斯濟至也
天下喜整 我整也 斯整至也
天下怒不和 我和也 斯和至也
天下哀不周 我周也 斯周至也

天下에서 구제하는 즐거움은 곧 내가 구제하는
것ियो.

天下에서 바로잡는 기쁨은 곧 내가 바로잡는 것
ियो.

天下에서 不和하는 노여움은 곧 내가 화합하여야
하는 것이요.

天下에서 不周하는 서러움은 곧 내가 주밀하여야
하는 것이다.

天下憂奪我奪也 人不得已奪也
天下 欺我欺也 人不得已欺也
天下角妬我妬也 人不得已妬也
天下愁竊我竊也 人不得已竊也

天下에서 빼앗는 근심걱정은 곧 내가 빼앗는 것
ियो. 사람들은 부득이 빼앗는 것이다.

天下에서 속임에 굶주림은 곧 내가 속이는 것이
요. 사람들은 부득이 속이는 것이다.

天下에서 투기함에 다툼은 것은 곧 내가 투기하
는 것이요. 사람들은 부득이 투기한다.

天下에서 도적질하는 근심은 곧 내가 도적질하는
것이요. 사람들은 부득이 도적질한다.

故曰志之不善 非志才之罪也 慾之罪也
膽之不善 非膽才之罪也 逸之罪也
慮之不善 非慮才之罪也 放之罪也
意之不善 非意才之罪也 私之罪也

고로 志(膽慮意)之不善은 志(膽慮意)才의 罪가
아니요 慾(逸, 放, 私)의 罪이다.

才는 타고난 本性이요. 私慾放逸은 私慾이니 인
간은 자기가 自律的으로 濟整和周할 수도 奪欺妬竊
도 할 수 있는 존재며 그에 따라서 天下도 濟整和
周도 奪欺妬竊하며 他人도 奪欺妬竊할 수도 있다.
이는 사람의 修己가 근본이 되며 이에따라 治人도
영향을 받게됨을 설명하고 있다.

天下恭敬我敬也 欺敬至也
天下從忠我忠也 欺忠至也
天下明誠我誠也 欺誠至也
天下聽信我信也 欺信至也

天下에서 삼가 공경함은 곧 내가 공경하는 것이
요.

天下에서 충성함을 따르는 것은 곧 내가 충성하
는 것이요.

天下에서 정성을 밝히는 것은 곧 내가 정성스럽
게하는 것이요.

天下에서 믿음을 듣는것은 곧 내가 믿음스럽게하
는 것이다.

天下慢狂我狂也 人必應以慢也 天下詭僞我僞也

人必應以諛也

天下蔑豫我豫也 人必應以蔑也 天下瞞急我急也
人必應以瞞也

天下에서 미친듯이 거만함은 곧 내가 사납기 때
문이요 사람들은 반드시 거만으로써 응한다.

天下에서 어기어 거짓함은 곧 내가 어기기 때문
이요 사람들은 반드시 거짓으로써 응한다.

天下에서 미리 멸시함은 곧 내가 미리 멸시하기
때문이요 사람들은 반드시 멸시로서 내게 응한다.

天下에서 급히 기만하는 것은 곧 내가 급하기 때
문이요 사람들은 반드시 거짓으로써 내게 응한다.

故曰貌之不善 非貌才之罪也

言之不善 非言才之罪也 浪之罪也

視之不善 非視才之罪也 僞之罪也

聽之不善 非聽才之非也 妄之罪也

고로 貌(言視聽)도不善은 貌(言視聽)才의 죄가
아니요. 恣(浪, 僞, 妄)의 罪이다.

才는 타고난 本性이요. 恣(浪, 僞, 妄)은 私慾이니 인
간은 자기가 自律的으로 敬忠誠信 할 수도 狂僞豫
急할수도 있는 존재며 그에 따라서 天下도 敬忠誠
信도 狂僞豫急하며 他人도 慢詭蔑瞞할 수도 있다.

이는 사람의 修己가 근본이 되며 이에따라 治人
도 영향을 받게됨을 설명하고 있다.

衆慾相奪 一勤濟之則 天下之志憂者 皆樂之矣

樂之者 孰能禦之乎

衆逸相欺 一能整之則 天下之膽 者 皆喜之矣

喜之者 孰能禦之乎

衆放相妬 一慧和之則 天下之慮角者 皆不怒之矣

不怒之者孰能禦之乎

衆私相竊 一誠周之則天下之意愁者 皆不哀之矣

不哀之者孰能禦之乎

衆人들의 慾(逸, 放, 私)로 서로 奪(欺, 妬, 竊)
하더라도 자신이 勤(能, 慧, 誠)으로 그것을 濟(整,
和, 周)한즉 天下의 志(膽慮意) 憂(, 角, 愁)자가
모두가 그것을 樂(喜, 不怒, 不哀)한다. 이는 결국
자신의 自律的인 面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나
자신의 勤能慧誠으로 他人들의 私慾에 의한 다툼을
濟整和周한즉 天下가 모두 樂, 喜, 不怒, 不哀함을
설명하고 있다.

是故 天心之志 恒欲濟 而人心之志 皆不欲奪也

欲濟者 惻也 不欲奪者 隱也

然則 無惻隱之兩端者 非天理人欲之志也

天心之膽 恒欲整 而人心之膽 皆不欲欺也

欲整者 羞也 不欲欺者 惡也

然則 無羞惡之兩端者 非天理人欲之膽也

天心之慮 恒欲和 而人心之慮 皆不欲妬也

欲和者 辭也 不欲妬者 非天理人欲之慮也

天心之意 恒欲周 而人心之意 皆不欲竊也

欲周者 是也 不欲竊者 非也

然則 無視非之兩端者 非天理人欲之意也

따라서 志膽慮意를 天心과 人心의 志膽慮意로 나
누고 天心之志膽慮意는 恒欲濟(整, 和, 周)하며 人
心之 志膽慮意는 皆不欲奪(欺, 妬, 竊)하고 欲濟
(整, 和, 周)는 惻(羞, 辭, 是)로 不欲奪(欺, 妬,
竊)는 隱(惡, 讓, 非)로 관련지어 놓았으며 인간은
모두 惻隱, 羞惡, 辭讓, 是非之兩端을 다 가지고 있
다고 하였다. 이는 人의 志膽慮意는 欲, 不欲할 수
있는 自律的인 存在임을 밝혀 놓은것이다.

衆恣相狂 一仁敬之則 天下之貌慢者 皆恭之矣
恭之者 孰能違之好.

衆浪相僞 一義忠之則 天下之言詭者 皆從之矣
從之者 孰能違之好.

衆僞相瞞 一禮誠之則 天下之視蔑者 皆明之矣
明之者 孰能違之好.

衆妄相急 一智信之則 天下之聽瞞者 皆聽之矣
聽之者 孰能違之好.

衆人들의 恣(浪, 僞, 妄)로 서로 狂(僭, 豫, 急)하더라도 자신이 仁(義, 禮, 智)으로 그것을 敬(忠, 誠, 信)한즉 天下의 貌(言, 視, 聽) 慢(詭, 蔑, 瞞)자가 모두 그것을 恭(從, 明, 聽)한다. 이는 결국 자신의 自律的인 面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나 자신의 仁義禮智로 衆人들이 私慾에 의한 다툼을 敬忠誠信한즉 天下가 모두 恭從明聽함을 설명하고 있다.

是故對衆之貌皆欲敬而守己貌恒不欲狂也
欲敬者肅也不欲狂者恭也
然則無肅恭之兩隅者非道心人心之貌也
對衆之言皆欲忠而守己之言恒不欲僭也
欲忠者艾也不欲僭者從也
然則無艾從之兩隅者非道心人心之言也
對衆之視皆欲誠而守己之視恒不欲豫也
欲誠者哲也不欲豫者明也
然則無哲明之兩隅者非道心人心之視也
對衆之聽皆欲信而守其之聽恒不欲急也
欲信者謀也不欲急者聽也
然則無謀聽之兩隅者非道心人心之聽也

따라서 貌言視聽을 對衆과 守己의 貌言視聽으로 나누고 對衆之貌言視聽은 皆欲敬(忠, 誠, 信)하며 守己之貌言視聽은 恒不欲狂(僭, 豫, 急)하고 欲敬(忠, 誠, 信)은 肅(艾, 哲, 謀)로 不欲狂(僭, 豫, 急)은 恭(從, 明, 聽)으로 관련지어 놓았으며 인간은 모두 肅恭, 艾從, 哲明, 謀聽之 兩隅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人의 貌言視聽은 欲, 不欲할 수 있는 自律的인 存在임을 밝혀 놓은 것이다.

志貌篇은 결국 事나 物은 모두 人의 自律的인 面에 의하여 좌우됨을 설명하고 있으며 陰陽的으로 이를 설명한다면 아래와 같다.

志(臆, 慮, 意) :

物四端 〔天心—欲—陽→陰中之陽
陰 〔人心—不欲—陰→陰中之陰

貌(言, 視, 聽) :

事四端 〔對象—欲—陽→陽中之陽
陽 〔守己—不欲—陰→陽中之陰

4. 天 下

天下極邈 爲居者 極邈也
天下極廣 爲群者 極廣也
天下極大 爲合者 極大也
天下極蕩 爲散者 極蕩也

天下는 지극히 멀고 아득하다. 그곳에서 居하는 者도 지극히 먹고 아득하다. 天下는 지극히 넓으며 그곳에서 群하는 者도 지극히 넓다. 天下는 지극히 크며 그곳에서 合하는 者도 지극히 크다. 天下는 지극히 넓고 크며 그곳에서 散하는 者도 지극히 크고 넓다.

이는 天機의 極邈, 極廣, 極大, 極蕩함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萬物居也, 萬身群也, 萬心聚也, 萬事散也하는 居, 群, 聚, 散도 極邈, 極廣, 極大, 極蕩함을 말하는 것이다.

辨所以明也 肅極邈也
思所以慎也 艾極廣也
問所以審也 哲極大也
學所以博也 謀極蕩也

辨이 밝히기 때문에 肅는 지극히 아득하다.
思가 삼기기 때문에 艾는 지극히 넓은 것이다.
問이 살피기 때문에 哲은 지극히 큰 것이다.
學이 넓히기 때문에 謀는 지극히 넓고 큰 것이다.
天機의 極邈, 廣, 大, 蕩함을 살피기 이해서는

事, 心, 身, 物, 中에서 事와 心四端을 관련지어 놓았다.

事와 心은 陽에 居, 身과 物은 陰에 居한다고 나눌수 있으며 天機의 極邈, 廣, 大, 蕩함은 形而上學的인 面으로 이해되므로 이에 事와 心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心四端인 學問思辨이 明慎審博하므로 事四端인 貌言視聽의 對衆之事인 肅艾哲謀가 極邈極廣, 極大, 極蕩하는 것이니 여기서 心四端과 事四端의 관계를 알수가 있다.

貧之義勤也 故所居 不患貧也
賤之義能也 故所群 不患賤也
困之義慧也 故所合 不患困也
窮之義誠也 故所周 不患窮也

貧의 義는 勤이다. 그러므로 居하는 바가 貧을 근심하지 않는다.

賤의 義는 能이다. 그러므로 群하는 바가 賤을 근심하지 않는다.

困의 義는 慧이다. 그러므로 合하는 바가 困을 근심하지 않는다.

窮의 義는 誠이다. 그러므로 周하는 바가 窮을 근심하지 않는다.

無可周也 所以固窮也
無可合也 所以守困也
無可群也 所以素履也
無可周也 所以困窮也

周할 수 없는것은 固窮하기 때문이다.
合할 수 없는것은 守困하기 때문이다.
群할 수 없는것은 素履하기 때문이다.
居할 수 없는것은 處貧하기 때문이다.

固窮何也固窮謹也

守困何也守困密也
素履何也素履潔也
處貧何也處貧儉也

學之所在有時窮焉
問之所在有時困焉
學問哲也窮困天也
慕哲事天抑可疑乎

學하는 일에 있어서 궁할때도 있고
問하는 일에 있어서 곤란할때도 있다.
學問은 皙이요 窮困은 天이다.
皙은 慕하고 天을 事하면 어찌 의심하겠는가?

天下相趨爲止者相趨也
天下相助爲動者相助也
天下相成爲遇者相成也
天下相救爲決者相救也

天下는 서로 달리고 그곳에서 止하는 者도 서로가 달린다.

天下는 서로 돕고 그곳에서 動하는 者도 서로가 돕는다.

天下는 서로 이루고 그곳에서 遇하는 者도 서로가 이룬다.

天下는 서로 구하고 그곳에서 決하는 者도 서로가 구원한다.

屈所以積也 利相趨也
放所以廊也 勇相助也
收所以弘也 謀相成也
伸所以豁也 知相救也

屈이 쌓게하기 때문에 利가 서로 달린다.
放이 크게하기 때문에 勇이 서로 돕는다.
收가 넓게하기 때문에 謀가 서로 이룬다.
伸이 소통하기 때문에 知가 서로 구원한다.

身四端인 屈放收伸이 積廓弘豁하므로 物四端인 志臆慮意의 用인 利勇謀知가 相趨, 相助, 相成, 相救하는 것이니 여기서 身四端과 物四端의 關係를 알 수가 있다.

富之道仁也 故所止不持富也
貴之道義也 故所動不持貴也

顯之道禮也 故所遇不持顯也
達之道智也 故所決不持達也

富의 道는 仁이다. 그러므로 止하는 바가 富를 의지하지 않는다.

貴의 道는 義다. 그러므로 動하는 바가 貴를 의지하지 않는다.

顯의 道는 禮이다. 그러므로 遇하는 바가 顯을 의지하지 않는다.

達의 道는 智이다. 그러므로 決하는 바가 達을 의지하지 않는다.

止而靠有何以惠爲 動而挾長何以勵爲
遇而矜時何以翼爲 決而夸勢何以迪爲

止에 어김이 있으면 무엇으로써 惠라 하며(은혜)
動에 험잡이 길면 무엇으로써 勵라 하며(힘씀)
遇에 자랑할때가 있으면 무엇으로써 翼이라 하며
(돕다)

決에 큰채하면 무엇으로써 迪라고 하겠는가. (나아가다)

所以惠也與衆富也
所以勵也與衆貴也
所以翼也與衆顯也
所以迪也與衆達也

은혜롭기 때문에 대중과 함께 富한다.

힘쓰는 까닭에 대중과 함께 貴한다.

도우는 까닭에 대중과 함께 顯한다.

나아가기 때문에 대중과 함께 達한다.

仁之所行利與重焉
義之所行勇有奇焉
禮之所行謀亦至焉
智之所行知又切焉

仁, 義, 禮, 智의 所行은 利勇謀知와 重奇至切이다. 仁義禮智는 富貴顯達을 與衆에도 미치게 하는 것이며 利, 勇, 謀, 知가 相趨, 相助, 相成, 相救하기 위해서는 屈放收伸이 積廓弘豁하여야 하므로 仁義禮智의 所行은 利勇謀知와 重奇至切이다.

利而惠也不乏惠也 勇而勵也不盡勵也
謀而翼也不絕翼也 知而迪也不竭迪也

利勇謀知가 惠勵翼迪하면 不乏惠, 不盡勵, 不絕翼, 不竭迪한다.

利勇謀知는 屈放收伸이 積廓弘豁하면서 相趨, 相助, 相救한다. 止動遇決에 靠, 挾, 矜, 夸가 없은 즉 惠勵翼迪하니 利勇謀知가 惠勵翼迪하면 不乏惠, 不盡勵, 不絕翼, 不竭迪한다.

利之所行仁首先焉 勇之所行義首先焉
謀之所行禮首先焉 知之所行智首先焉

仁義禮智의 所行이 利勇謀知와 重奇至切이니 利勇謀知의 所行은 仁義禮智를 먼저 머리로 한다.

仁而利也 利無害也
義而勇也 勇無怯也
禮而謀也 謀無不肖也
智而知也 知無愚也

仁하고 利하면 利는 해로움이 없다.
義하고 勇하면 勇은 겁이 없다.
禮하고 謀하면 謀가 모자람이 없다.
智하고 知하면 知가 어리석음이 없다.

一力先力 衆力趨力
一膽先膽 衆膽助膽
一慮先慮 衆慮成慮
一計先計 衆計救計

하나의 힘은 앞에서 이끄는 힘이 되고 대중의 힘은 趨력이 된다.

하나의 담력은 앞에서 이끄는 담력이 되고 대중의 담력은 助膽이 된다.

하나의 생각은 앞에서 이끄는 생각이 되고 대중의 생각은 成慮가 된다.

하나의 계책은 앞에서 이끄는 계책이고 대중의 계책은 救計가 된다.

이는 一力, 膽, 慮, 計가 衆力, 膽, 勵, 計하도록 하므로 修之가 先이요 治人은 그 後이다.

與衆利也 利亦仁也
與衆勇也 勇亦義也
與衆謀也 謀亦禮也
與衆知也 知亦智也

대중과 함께 利하면 利또한 仁이요,
대중과 함께 勇하면 勇또한 義이요,
대중과 함께 謀하면 謀또한 禮이요,
대중과 함께 知하면 知또한 智가 된다.

仁義禮智는 萬物居 萬身群, 萬心聚, 萬事散케 하니 與衆하여 利, 勇, 謀, 知하면 利, 勇, 謀, 知또한 仁, 義, 禮, 智가 된다.

Ⅲ. 考 察

李濟馬의 事心身物은 中庸의 다음 句節에 연원하고 있다.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中也者 天下로 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 致中和 天地信馬 萬物充焉”

이것의 原註를 보면 “自戒懼而約之 以至於至靜之中 無少偏倚 而其守不失 則極其中而天地位矣. 自謹獨而精之 以至於應物之處 無少差謬 而無適不然則極其和而萬物育矣. 蓋天地萬物 本吾一體 吾之心正則 天地之心亦正矣 吾之氣順則天地之氣亦順矣”.

여기서 中和는 人的 感情의 內在와 表現의 調節을 말하며 天地位와 萬物育이 이것과 같이 應順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中和는 心身의 面으로 天地位와 萬物育은 事物의 面으로 이해될 수가 있으니 이를 事物心身으로써 人間과 宇宙를 설명하는 基本單位로 삼았다.

李濟馬는 物宅身也 身宅心也 心宅事也로 이들의 관계를 설명하니 이는 物<身<心<事의 面으로 볼 수 있다.

李濟馬는 格致藁에서 使用하는 語彙를 一次的으로 四象構造에 의하여 羅列하고 그것들은 또 四象構造의 相互關係에 의하여 意味지어지도록 되어져 있으니 이를 表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²⁾ (표 1)

여기서 一, 萬, 大, 小, 近, 遠 등을 볼 수가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一은 單數 萬은 複數이며 單數는 하나, 個人, 自己 혼자서 있을 때 생기는 현상. 자신의 內面으로 向하는 현상. 複數는 여럿. 社會, 自己와 他人間에 생기는 현상. 자신의 外面으로 向하는 현상 등으로 확대추리하여 연역할 수 있다.

따라서 止行覺決 勤能慧誠은 個人的論理로 居群聚散 仁義禮智는 社會的論理로 설정해 볼 수 있고 실제 생활적인 面에서는 이런 個人的·社會的 論理

표 1

	一	二	三	四
	物	身	心	事
1	物止*	一身行*	一心覺*	一事決*
2	勤*以止	能*以行	慧*以覺	誠*以決
3	萬物居*	萬身群*	萬心聚*	萬事散*
4	仁*以居	義*以群	禮*以聚	智*以散
5	物萬*	身一*	心一*	事萬*
6	萬事大*	一心小*	一身近*	萬物遠*
7	治平大*	格致小*	誠正近*	修齊遠*
8	貌言視聽	辨思問學	屈放收伸	志膽慮意
	事	心	身	物
	I	II	III	IV

가 同詩에 존재하는 것이니 이런面에서 萬과 一이 昆在한다.

李濟馬는 이런 個人的 論理와 社會的 論理를 陰陽論的으로 설명하고자 大·小·近·遠으로 나누고 이것을 大學의 八德目과 연결지어 格致·誠正은 小·近과 관련지어 個人的 論理로 治平 修齊는 大·遠과 관련지어 社會的 論理로 설명한다. 따라서 이는 儒學의 修己治人과 李濟馬의 知人正己와 관련시켜 볼 수가 있다.

李濟馬가 事心身物을 展開함에 있어서 修己治人하는 유학의 기본정신을 가진 大學의 八德目を 연결하고 있으니 李濟馬의 改新儒學은 先秦儒學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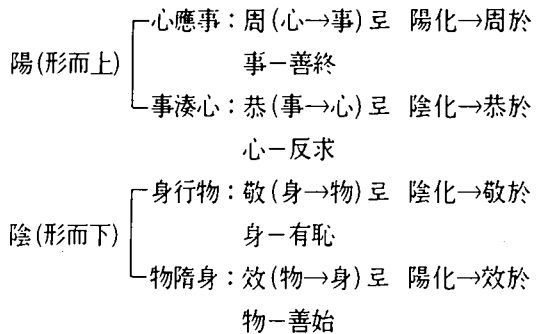
李濟馬는 事心身物에 각각 새로이 四端을 事自體에 두지 않고 事를 인식하고 공감할수 多兒言視聽에 두었다는 점과 物이란 일반적으로 自然界全體에 存在하는 事物을 통틀어 말하는데 이것의 四端을 物自體에 두지않고 物을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는 志膽慮意에 두었다고 하는 점에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人間을 中心으로 하여 體를 사람에 두고 宇宙의 原理를 用으로 하면서 宇宙의 原理인 道德을 人間中心으로 하여 知性和 德性으로 展開하고 있다는 점이다. 곧 自我와 非我로 나누어서 非我是 自我를 통하여 인식되어 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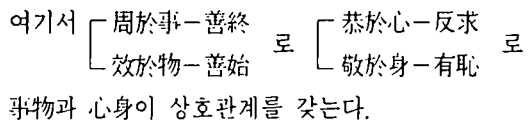
李濟馬는 事心身物의 요약정신으로 止行覺決의 偏倚邑不及之心을 嗇詐侈懶로, 學問思辨의 昧闇窒岡之心을 私慾放逸로 나누고, 또한 사회적 현상인 一天之同胞, 萬物之群居, 四方之會通, 百工之和利를 孔子의 君子小人之心 孟子의 四夫. 大學의 四心과 관련지어 四象의 四象으로 展開하였다.

事物篇은 勤能慧誠으로 修己正己하고 仁義禮智의 治人·知人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嗇詐侈懶와 私慾放逸을 博學治平 明辨修齊 審問格致慎思誠正으로 극복해야함을 말한것이다.

仁智禮義를 觀하는 것은 效周恭敬을 觀한다고 하였는데 事物篇에서 一物 一身 一心 一事는 勤能慧誠으로 止行覺決하나 萬物 萬身 萬心 萬事는 仁義禮智로 居群聚散한다고 하니 결국 仁義禮智는 一物 一身一心一事가 萬物萬身萬心萬事로 分化될대 적용되는 것이며 이러한 仁智禮義를 觀하기 위하여 事와 心이 應湊하고 身과 物이 隋·行한 分化의 結果인 效周恭敬을 觀한다고 하였다.⁶⁾ 이를 陰陽論的으로 圖式化해 보면



여기서 周於事 效於物은 陽化된 개념으로 善終善始하며 恭於心 敬於身은 陰化된 개념으로 反求 有恥한다.



따라서 觀仁(物)은 [觀效(物) 하야야 惻隱之實
觀周(事)] 不可掩이며
觀禮(身)은 [觀恭(心) 하야야 辭讓之實
觀敬(身)] 不可掩이

不智之仁 姑息之仁이요 不仁之智는 奸猾之智이며 無義之禮 苟妄之禮이요 無禮之義 武斷之義이다.

또한 慾於人(物)하면 誠(事) 하더라도 참된 誠(事)은 難知라고 하였고 同人之善(物) 而無利人之有者(事) 하야야 참된 誠(事)이라고 하였다.

嵩詐侈懶는 勤能慧誠과 驕矜伐夸는 仁義禮智와 관련을 지었는데 嵩詐侈懶는 偏決 倚止 邑覺不及行 하니 勤能慧誠으로 止行覺決케 해야하며 我嵩(詐侈懶)多이 萬人 嵩(詐侈懶)行케하니 嵩詐侈懶는 修己·正己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이며 驕矜伐夸는 治人 知人の 잘못으로 인한 결과이니 嵩詐侈懶는 勤能慧誠과 驕矜伐夸는 仁義禮智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志貌에서는 物四端과 事四端을 勤能慧誠과 仁義禮智와 관련지어서 설명하고 있으니 勤能慧誠은 物四端과 仁義禮智는 事四端과 관련되는데 이는 一과 萬, 陰陽 分化에 따라 相互關係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志瞻慮意之 濟整和周하며 貌言視聽은 敬忠誠信하는데 이는 모두 我가 濟整和周하야야 天下가 恭敬從忠 明誠 聽信한다. 또한 我가 奪欺妬竊하면 天下가 憂奪 欺 角妬 愁竊하고 人不得已奪欺妬竊하며 我가 狂僭 豫急하면 天下가 慢狂·詭僭·蔑豫·瞞急하고 人必應叭慢·詭蔑·瞞한다.

그러므로 志瞻慮意와 貌言視聽의 不善은 才의 罪가 아니요 또한 衆人이 私慾放逸과 恣浪僞妄의 罪라고하였다.

또한 衆人이 私慾放逸로 相奪欺妬竊하야도 一勤能慧誠으로 濟整和周하면 天下의 志憂·瞻·慮·角·

意愁者가 그것을 모두 樂喜, 不怒, 不哀한다. 姑로 志瞻慮意를 天心과 人心로 兩端으로 두고 天心은 慾濟(整·和·周)하니 惻, 羞, 辭, 是이며 人心은 不欲奪(欺, 妬, 竊)하니 隱·惡·讓·非이다.

衆人이 恣浪僞妄으로 相狂·僭·豫·急하야도 一仁·義·禮·智로 敬·忠·誠信하면 天下의 貌慢·言詭·視蔑·聽瞞者가 그것을 모두 恭從明聽한다. 故로 貌言視聽을 對衆과 守己兩隅로 두고 對衆은 欲敬(忠誠信)하니 肅·艾·哲·謀이며 守己는 不欲狂(僭·豫·急)하니 恭·從·明·聽이다.

결국 我가 欲하느냐 不欲하느냐의 자율적의지가 중요하니 志貌篇은 事와 物은 人的 自律的인 欲不欲에 의하여 결정됨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天下가 極逸·廣·大·蕩하므로 그곳에서 居·群·合敬하는 者도 極逸·廣·大·蕩하며 辨思問學이 明博, 하기 때문에 肅艾哲謀가 極逸·廣·大·蕩한다.

貧賤困窮의 義는 勤能慧誠이니 居群合周하는바에 貧賤困窮의 근심이 없어진다.

困窮, 守困, 素履, 處貧하므로 周合群居가 無可하니 비록 固窮, 守困, 素履, 處貧하더라도 儉潔密謀하여 貧理·賤情 困機·窮勢를 알면 貧賤困窮이 樂淸享吉이된다.

故로 貧賤困窮은 天에 있고 學問思辨은 哲에 있으니 學問思辨으로 慕哲하고, 事天한즉 貧賤困窮도 樂·淸·享·吉한다.

天下가 相趨·助·成·求하므로 그곳에서 止·動·遇·決하는 者로 相趨·助·成·求하며 屈放收伸이 積廓弘豁하기 때문에 利勇謀知가 相趨·助·成·求한다.

富貴顯達의 道는 仁義禮智이니 止動遇決하는바에 富貴顯達에 의지하지 않는다.

止動遇決에 靠挾, 衿, 夸가 없으니 惠勳翼迪하고 惠勳翼迪하므로 大衆과 함께 富貴顯達한다.

仁義禮智의 所行은 利勇謀知에 重·奇·至·切하니 利勇謀知의 所行은 仁義禮智를 首先으로 하고 仁義

禮智에 利勇謀知하니 利無害하고 勇無怯하고 謀無不肖하고 知無遇한다.

一力·膽·慮·計가 있어야 衆의 趨力·助膽·成慮·求計하니 修己가 先이요. 治人은 그 後라 하겠다.

어 效·周·恭·敬·으로 나타날때는 事物/心身으로 相互關係되어진다.

參 考 文 獻

IV. 結 論

1. 李濟馬 格致藁에서 使用하는 語彙는 一次的으로 四象構造에 의하여 羅例하고 그것들은 또 四象構造의 相互關係에 의하여 의미지어지도록 되어져 있다.

2. 李濟馬는 人間을 中心으로하여 主를 사람에 두고 사람에 의하여 認識·共感되어지는 事物을 客으로 보며 따라서 事四端은 貌言視聽으로 物四端은 志膽慮意로 設定하였다.

3. 事心身物은 事心/身物 또는 事物/心身の 相互關係를 가지는데 形而上學的인 설명에서는 事心/身物로 相互關係되어지며 私心과 新物이 相互關係되

1. 朴奭彥譯：格致藁 서울 太陽社 1985.
2. 李乙浩：韓國改新儒學史試論 서울 博英社 1982.
3. 論語/中庸 서울 (주)삼성문화개발 1992.
4. 孟子/大學 서울 (주)삼성문화개발 1992.
5. 宋一炳：李濟馬哲學의 學問的背景과 四象醫學의 成立에 대한 考察 사상의학회지 vol 3. No.1 1991.
6. 趙晃晟：李濟馬의 格致藁中 『儒略』에 關한 考察 사상의학회지 vol 3. No. 1 1991.
7. 崔炳一：李濟馬의 本體觀과 그 背景에 대한 研究 사상의학회지 vol 2. No. 1 1991.